조례안 발의에 서울시의회 조직적 토대 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시의회 의원 17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는 특별위원회 등 조직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다. 바티칸 교황청이 주관하는 세계청년대회는 개막미사·영성 아카데미·폐막미사 등 종교 의례가 핵심을 이루는 행사임에도,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에,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선임하며 총 10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불교계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협의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아 초기부터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채수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위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갈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현기 위원장은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150여 개국 70만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라며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선 국제적 축제인 만큼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대회는 교황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교황청이 결정하게 돼 메인 행사장이 결정이 안 됐다" "서울대교구가 서울 행사 전체를 총괄한다" 등의 서울시 관계자 발언이 이어져 종교행사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대회 준비 전반을 총괄할 전담 조직(TF) 구성과 문화·관광·청년·교통·안전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교계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종교 중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17명은 4월 6일, 가톨릭행사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예산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사진은 올해 3월 13일 열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캡쳐.

지난해 12월 31일, 특위 구성
2차 회의부터 숙소 본격 논의
"교육감도 대회 협력에 공감"
김현기 위원장 "특별법 없어도 서울시 예산 지원하면 된다"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자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1월 15일 열린 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참가자 숙박·급식·위생·안전 대책 등 실무 준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서울시는 시·자치구·교육청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통해 학교시설 활용과 급식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 지원 계획을 구체화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대규모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200여 곳과 220여 개 성당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교육청에서도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도 빨리 확립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행사 준비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3월 1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칠성·박수빈·오금란·한신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활동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 이날 박칠성 의원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3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자치행정과, 교육청 교육재정과, 자치구 기획예산과 등이 참여하는 '숙박 TF'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인 사실이 보고됐다.

논의가 진전되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 사항도 드러났다. 문성호 위원은 "학교 개방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의 반대가 예상된다"며 "학교가 세계적인 대회를 도와줬다는 취지가 있으니, 운영비나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연주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해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대회 기간이 여름방학과 겹치는 점도 지적됐다. 이종태 위원은 "방학 중에도 초등 돌봄과 고등학생 자율학습 등이 운영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인근 학교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현기 위원장은 국회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라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K-사찰음식' 매력 전하다

문화사업단, 주일한국문화원 'K-FOOD FESTA' 참여

4월 8~10일 일본 도쿄서
전시·시식·시연 등 진행

한국불교 식문화인 사찰음식의 매력과 가치가 일본에 전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8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K-FOOD FESTA'에 참여해 사찰음식의 가치와 매력을 현지에 선보였다"고 4월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23일까지 주일한국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 주최한다.

'K-FOOD FESTA'는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를 △생애주기별 상차림 △사찰음식 △전통주 세 가지 주제로 소개하는 기획전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사찰음식 전시와 시식·시연 행사, 전통주 관련 프로그램 등이 함께 운영되며, 한국 식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일본 현지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화사업단이 선보인 '사찰음식' 전시관에서는 6인의 사찰음식 명장 스님의 대표 메뉴를 음식 모형으로 소개하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사계절 사찰음식 모형을 함께 전시해 사찰음식의 계절적 특징과 절제된 미학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전시관에서는 사경 체험과 만화 형식의 '웹툰 공양' 열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관람객들이 한국 불교문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 전시에 그치지 않고 사찰음식에 담긴 생활문화와 철학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 장인 혜범 스님이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이 주최한 'K-FOOD FESTA'에서 사찰음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주일한국문화원

사찰음식 시연 및 시식행사는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주일한국문화원 2층 라운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차별 50명 규모로 운영됐으며, 총 100명이 참가했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행사에서 사찰음식 장인 혜범 스님이 직접 시연을 맡아 일본 현지 참가자들에게 사찰음식을 소개했다. 9일에는 연잎밥, 토마토 물김치, 제피장아찌를, 10일에는 사찰식 들기름 간장국수와 연근삼색전을 선보이며 시연과 시식 형태로 운영했다.

특히 이번 시연은 사찰음식이 단순한 채식이나 건강식이 아니라, 제철 식재료를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존중하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라는 점을 현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직접 보고 맛보며 사찰음식 특유의 담백한 맛과 조리 방식, 재료 본연의 풍미를 체험했다.

개막식에서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 나라의 역사와 계절,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문화"라며 "사찰음식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절제와 지혜를 실천해 온 한국의 전통 식문화로, 생명을 존중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찰음식 시식 및 시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사찰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혜 주일한국문화원장은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 식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K-FOOD FESTA'는 사찰음식을 비롯한 한국 식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사찰음식 시연·시식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한국 식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도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현장 반응과 관련해 행사 관계자는 "일본 참가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전시장에서도 사경 체험과 문화사업단 제작 책자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일한국문화원 차원에서도 사찰음식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례가 드문 만큼, 한국의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